

보니 캐신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김 인 주 · 우 주 형⁺

신시네티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서양 문화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복식문화 또한 권력의 흐름에 따라 유행의 중심지가 바뀌어 가며 발전되어 왔다. 유럽의 패션에 비해 미국 패션 산업은 그 역사도 짧고 리테일링을 중시하여 미국 패션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약한 편이었고 따라서 학술적으로도 그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현대 패션디자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1세대 디자이너라 할 수 있는 보니 캐신과 그녀의 작품세계를 고찰하여 그 디자인 특성을 파악해 보는 데에 있다. 이는 미국 현대 패션디자인의 원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유럽 중심으로만 연구해온 복식사에 미국 패션디자이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서양 복식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신시네티 대학교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된, 캐신이 가장 활발하게 미국 패션계에서 활동하던 1950년~70년대의, 총 243점의 의상들이다. 대부분 평면적인 구성으로 풍성하고 활동성이 좋은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소재는 합성섬유보다는 울, 가죽, 실크, 면 등 자연소재들, 그 중에서 울과 가죽 소재가 특별히 많았다. 색상은 흑백의 모던한 느낌보다는 딥톤과 톤의 성숙한 가을 분위기의 색상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동양풍의 영향이 짙은, 복잡하지 않고 깨끗한 라인, 적당한 맞음새, 큰 포켓과 같은 기능적 디테일들로 실용적이고 편안함이 돋보인다. 따라서 캐신의 디자인 특성은 편안한 실용성, 편리한 기능성, 동양적인 평면성, 스타일링의 유동성, 그리고 일상을 위한 대중성으로 분석되었다. 오늘날 미국 패션 산업은 전쟁 후 변모하기 시작한 미국 여성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관찰하여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일찍 감지하여 디자인에 적용한 캐신의 통찰력과 직관력, 그리고 내적 감각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제어 : 미국 패션, 보니 캐신, 라이프스타일, 실용성, 레이어드스타일

⁺교신저자: 우주형, jhwoo@inha.ac.kr

접수일: 2018년 4월 22일, 수정논문접수일: 2018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17일

I.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 목적

서양 문화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복식문화 또한 권력의 흐름에 따라 유행의 중심지가 바뀌어 가며 패션의 역사가 기술되어 왔다. 과거 세계패션의 주요 흐름이 파리, 밀라노, 런던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제 뉴욕 컬렉션은 그들과 버금갈 만큼 중요한 컬렉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본의 흐름에 민감한 패션산업의 당연한 귀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많은 신진 디자이너들이 미국 컬렉션을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패션에 비해 미국의 패션산업은 그 역사도 짧고 리테일링을 중시하면서 미국 패션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약한 편이었고 따라서 학술적으로도 그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미국 패션디자인에 대한 사적 고찰이나 디자이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풍부하지 못하며 관련 책이나 논문 등이 미흡한 형편이다. 한국에서 발표된 미국 디자이너 관련 연구로는 Jung(1995)의 도나 카란(Donna Karan), Nam and Park(2001)의 랄프 로렌(Ralph Lauren), Lee et al.(2008)의 클레어 맥카텔(Claire McCardell)에 관한 논문이 있고, 미국 패션디자인에 대해서는 Ha(2002)의 미국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기능주의에 대한 논문이 대표적으로 유럽의 패션디자인 연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패션 산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환기를 맞게 되는 데 이 시기 미국 패션을 선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명 디자이너는 맥카텔이 있다. 그러나 가장 창의적이고 선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정한 미국의 패션 혁명을 대중화시킨 기수로 디자이너 보니 캐신(Bonnie Cashin)을 간과할 순 없다.

캐신은 일반적으로 ‘미국 스포츠웨어의 대모’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미국 패션계의 주요한 상을 많이 받았고 새로운 착장법과 디테일의 옷들을 많이 개발하여 이후 패션디자이너들에게 크게 영향

을 끼쳤다. 2018년 봄 컬렉션에 캘빈 클레인(Calvin Klein)의 라프 시몬스(Raf Simons)는 캐신의 오랜 지색 판초와 매우 흡사한 디자인으로 발표하여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Feiteberg, 2017). 2000년 그녀가 사망하였을 때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전시장에서는 보니 캐신 추모 전시회를 열었으며 그녀가 한동안 일했던 코치(Coach)에서는 그녀를 기념하며 그녀 이름을 딴 컬렉션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016년 캐신의 동료이자 디자인사가인 스테파니레이크(Stephanie Lake)가 그녀가 남긴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캐신의 전기, 『Bonnie Cashin: Chic is where You Find it』을 발표하였다(Lake, 2016).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어 1세대 디자이너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캐신과 그녀의 작품세계를 고찰하여 그 디자인 특성을 파악해 보는 데에 있다. 이는 미국 현대 패션디자인의 원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유럽 중심으로만 연구된 복식사에 미국 패션디자이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서양 복식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한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캐신에 관해 신문이나 대중매체 등에 실린 기사 및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그녀의 생애와 작업에 대해 조명해 본다. 둘째, 신시내티 대학교(University of Cincinnati)가 소장하고 있는 그녀의 작품 실물 57점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이미지의 작품 253점 중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186점을 합친 총 243점의 작품들을 형태, 색상, 소재, 디테일 측면에서 분석한다. 색상 분석은 색채 분석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IRI 색상과 톤 시스템

(IRI Hue & Tone system)을 사용하였다. 특히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작품은 디지털 이미지여서 (주)IRI 디자인 연구소(<http://www.iricolor.com>)의 IRI 색상과 톤 120(IRI Hue & Tone 120)의 모니터 값을 jpg파일로 내려 받아 색상과 톤 120의 색상을 캐신의 작품 이미지와 동등한 화면에 배치하여 의상에 사용된 색상과 톤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된 디자인 요소들을 토대로 캐신 디자인의 특성을 도출해본다. 넷째, 캐신 디자인의 가치와 미국과 현대 패션디자인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본다.

연구의 범위는 보니 캐신이 가장 활발하게 미국 패션계에서 활동하던 1950년~70년대의 의상으로 하며, 가방, 장갑 등의 액세서리나 무대의상 작품은 제외하도록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1940~1970년대의 복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적대적 양상으로 대립하는 냉전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무기생산을 비롯하여 모든 것들이 경쟁 체제로 도입하면서 경제도 발전하였고 자본축적의 속도는 가속화되었다. 특히 미국은 전쟁 전후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여 자본주의 체제에서 제1 강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풍요의 시대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부추겼으며 이는 패션의 산업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특히 교통통신기관의 급속한 발달로 국가 간 거리가 좁아져 유럽 복식이 국제적 의복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전쟁 중 개발된 인조섬유와 천연섬유의 교적이 인기를 끌었다(Shin, 2006).

시대상을 대변하듯 전쟁 기간 유행했던 남성적인 밀리터리룩은 전쟁과 함께 종식되었다. 1947년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뉴욕(New Look)은

여성들에게 우아함을 되찾아주었고 파리의 오프 꾸뛰르를 부활시켰다. 1950년대는 한마디로 라인의 시대로서 뉴욕 이후 다양한 라인이 발표되었으나 대부분 허리를 조이거나 타이트한, 여성성을 드러내는 실루엣이었다(Jung, 2002).

1950년대 파리는 여전히 패션의 심장부였지만 1940년대 제임스 갈라노스(James Galanos), 노먼 노렐(Norman Norell), 찰스 제임스(Chales James)와 셔츠 드레스로 유명한 미국식 스포츠웨어 디자이너 맥카텔의 영향으로 이 시기 뉴욕 패션은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했다(Milbank, 1985). 또한 남녀의 동등한 지위가 인정되면서 바지의 착용이 보편화되었고 새로운 유행스타일을 만들어내었다(Lee & Park, 2011). 1950년대 중반 이후 눈에 띄는 변화는 젊은이들의 패션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전후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들은 풍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음악, 패션, 문화 전반에 중심 리더로 부상하게 되었고 진, 미니스커트의 유행 등을 이끌면서 오프 꾸뛰르의 지배를 무력화시켰다. 패션은 젊고 자유로운 형태로 바뀌면서 영 모드(young mode), 유니섹스룩(uni-sex look)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오히려 꾸뛰르 디자이너들이 기성복 산업에 뛰어드는 역 현상을 만들게 되고 유럽과 미국의 패션은 새로운 기성복 산업을 향해 질주하게 되었다(Lee et al., 2008). 1955년 2월호 『Elle』는 자르텐 데 모드(Jardin des modes)의 여름 기성복을 여러 페이지에 실었고 그 해 8월호 『Vogue』에서는 지면 전체가 기성복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패션의 새바람을 예고했다(Baudot, 1999).

1940~50년대에는 프랑스 패션의 영향력은 여전하여 파리에서 출시된 패셔너블한 스타일이 바로 며칠 후면 미국에서 복제되어 팔리던 시기였으나 1960년대에 미디어와 다양한 스트리트 패션의 영향으로 복제는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1960년대 시대정신과 사회상은 청소년의 혁명과 자유정신, 성 혁명과 여성 해방운동, 냉전 및 월남

전 그리고 히피운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64년에 시민 권리 법령이 제정되고, 1966년에는 NOW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가 결성되어 여성 근로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디자인은 유행의 하향 전과 양상에 큰 혼란이 생기고, 유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이념의 태동으로서의 미국적인 아메리카 록을 성립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Choi, 1992). 이러한 새로운 미국적 태도는 캐신에게 영감을 주었다.

2. 캐신의 생애

<Figure 1>과 같이 캐신은 1915년 프레스노(Fresno)에서 사진작가 아버지와 양재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캐신은 로스앤젤레스의 쇼이날드 예술학교(Chouinard School of Art)에서 드로잉을 배웠고 프랑콘과 마르코(Franchon & Marco) 공연단에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무대의상을 고민하고 있던 당시 합창단의 단장은 캐신의 스케치를 보고 그녀에게 무대의상을 부탁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녀는 무대의상디자이너가 되었다. 이후 1933년 뉴욕으로 건너가 당시 가장 유명한 극장 중의 하나였던 록시 극장(The Roxy Theater)의 록시에뜨(Roxyettes) 공연 의상을 맡으며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였다.

캐신은 록시 극장에서 24명의 공연단을 위해 일주일에 3벌씩 의상을 디자인하였는데 어머니에게 배웠던 여러 기술과 재단법을 응용하여 아주 적은 예산으로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의상을 만들어내어 크게 호평을 받았다. 채 20살도 되지 않은 캐신은 ‘브로드웨이를 강타한 가장 어린 디자이너’로 알려졌다. 1937년, 그녀의 무대의상에 경탄한 『Harper's Bazaar』의 편집장 카멜 스노우(Carmel Snow)의 도움으로 캐신은 최고급 수트와 코트 제조업체인 아들러 앤 아들러(Adler & Adler)의 디자이너가 되었다

(Iverson, n.d.). 그녀의 첫 컬렉션은 성공을 거뒀다. 다양한 소재를 같은 색으로 염색하여 이어 만들거나 허리 밴드를 사용한 드레스 등 무대의상에 사용했던 디테일들을 디자인에 응용하여 디자인이 ‘너무 과감하고, 극단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곧 이런 평범한 소재들과 화려한 무대의상 디테일의 결합은 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포멀웨어를 디자인하던 회사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캐주얼웨어를 디자인하였으며 이곳에서 1943년까지 일했다 (The Editors of Encyclopaedia Britannica, n.d.).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당시 캐신은 1941년 뉴욕 시장 라구아르디아(LaGuardia)의 요청으로 맥카텔, 베라 맥스웰(Vera Maxwell)과 함께 비공개 디자인팀을 만들어 뉴욕시의 민간 방위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유니폼을 디자인하여 전쟁에 기여하기도 했다. 캐신은 이 경험을 이후 자신의 디자인 컬렉션에 활용했다. 전쟁으로 직물이 귀했기에 그녀는 ‘세퍼레이트(Seperates)’라는 새로운 단일 아이템 디자인을 시도했다. 상, 하의를 다양하게 믹스, 매치하여 옷의 활용 범위를 다양하게 만들려 한 것이었다(Sarofeen, 2014).

전쟁 시기 동안 예술학생리그의 야학에 다니며 남편 로버트 스테너(Robert Sterner)를 만나 색, 디자인, 예술에 대한 조예 등 많은 부분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았으나 사별하였고, 이후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 1943년 할리우드 20세기 폭스 사(Twenty Century Fox)에서 영화 의상 디자이너로 활동하였다. 전쟁으로 물자 절약을 위한 규제(The War Production Board L-85)가 계속 있었으나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이러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어머니와 함께 일상복을 찾는 여배우들을 상대로 의류사업도 시작하였다.

1949년까지 캐신은 20세기 폭스사에서 『Laura』, 『The key of the kingdom』를 비롯하여 60여 편의 영화에서 의상을 디자인하였다. 여행을 좋아했던 캐신은 영화사를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떠났고 여

행지의 타문화에 매료되었다. 이는 이후 그녀의 디자인에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다. 여행에서 뉴욕으로 돌아와 1949년에서 1951년까지 2년간 아틀러 앤드 아틀러로 다시 복귀하여 기성복 디자이너로 일하다 그만두고 1953년, 자신의 이름을 딴 보니 캐신 디자인(Bonnie Cashin Design, Ltd.)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Sumathi, 2002). 그러나 자신의 회사에서 자기 이름의 브랜드 런칭을 한 것은 아니었다. 회사는 단지 작업실의 개념이었고 마치 현재의 프로모션 업체처럼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의 형태로 디자인을 공급해주는 것이었다. 그 중 필립 실즈(Philip Sills & Co.)는 가장 중요한 협업회사로 1953년부터 1977년까지 함께 작업하며 여성스포츠웨어 발전을 도모하였다.

1962년에는 남성용 가방 제조업자였던 마일즈와 릴리언 칸(Miles and Lillian Cahn)의 브랜드, 코치에 영입되어 여성을 위한 가죽 가방 및 액세서리 컬렉션인 ‘캐신 캐리(Cashin Carry)’를 런칭했다. 또한 레가시(Legacy)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등 1974년까지 코치 디자인을 맡았고 핸드백디자인 작업은 마이어(Meyers)를 위해 1975부터 1979년까지 이어졌다. 니트가 주는 따뜻한 느낌의 편안함과 활동성을 좋아한 캐신은 1964년에서 1968까지는 피블즈 오브 발렌틴(Ballantyne of Peebles), 그리고 1970년부터 1980년까지는 핸드 니트를 전문으로 하는 자신의 브랜드, 니터리(Knittery)에서 캐시미어 아이템들을 디자인하였다. 제조업체 러셀 타일러(Russell Taylor)를 위해 1978년에서 1985년에 걸쳐 캐신 컨트리(Cashin Country)와 웨더웨어(Weatherwear)라는 브랜드로 기성복 디자인을 하였다(Bonnie Cashin collection of fashion, theater, and film costume design, 1913-2000, n.d.). 비록 파리 유명 꾸뛰르 하우스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딴 개인 브랜드는 없었지만 캐신은 누구보다 활동적으로 미국항공(American Airlines)의 승무원 유니폼을 비롯하여 니트와 우븐을 가리지 않고 가방이나 장갑 등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아이템들을 디자인하였다.

수상 기록을 살펴보면 1950년에 열린 그녀의 첫 북귀 컬렉션에서 미국 패션디자이너협회(CFDA) 상의 전신인 코티상(Coty American Fashion Critics Award)과 니만 마커스 상(Marcus award)을 동시에 수상하였고 이후 5번의 코티상 수상으로 1972년에는 명예의 코티 미국 패션비평가 전당으로 추대되었다. 1980년에는 비영리적으로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공급하는 혁신적 디자인 펀드를 설립하였다. 미국 패션 기성복 산업의 초석을 놓았던 캐신은 2000년 2월에 심장 수술 도중 사망하였다(Bonnie Cashin collection of fashion, theater, and film costume design, 1913-2000, n.d.). 2000년 9월에는 그녀를 기리는 회고전이 F.I.T. 전시장에서 ‘보니 캐신, 실용성을 꿈꾸는 자(Bonnie Cashin, Practical Dreamer)’의 제목으로 열렸다.

III. 캐신의 디자인

1. 캐신의 패션 철학

디자인 역사가이며 캐신의 친구였던 스테파니 데이 이벌슨(Stephanie Day Iverson)이 인베스털스 비즈니스 데일리(Investor's Business Daily)의 리사 슈메이저(Lisa Schmeiser)에게 “캐신은 트렌드나 반짝하는 유행에 따라 디자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룩과 스타일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Bonnie Cashin Biography, n.d.). ‘가능한 가볍게, 가능한 단순하게, 가능한 효과적으로, 가능한 비싸지 않게’ 이것은 캐신의 콘셉트이었다(Design Museum, 2011).

캐신이 아직 영화 의상을 하던 1947년 유럽에서는 디올의 봄 컬렉션이 발표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패션의 혁명이라 부르며 열광하였다.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분위기는 전쟁 이전 시대의 평화와 향

수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디올이 그의 어머니와 벨에포크 시대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룩’의 의미를 담은 뉴룩을 발표한 것이다. 코르셋과 패드로 여성들에게 더 여성스런 실루엣을 부여한 뉴룩은 아름다웠고 전쟁 시기의 궁핍함과 무미건조함에 찌든 여성들은 환호하였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과거 시대애나 찾을 수 있는 미와 라이프스타일에 기초한 것이었다. 실제로 디올의 뉴룩 이후 패션계는 파리 오프꾸뛰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지만 캐신은 이에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20파운드나 되는 드레스를 하룻밤 여행 짐에 구겨 넣을 수는 없죠”라고 파리 여성들의 패션을 보며 캐신은 말했다(Sarofeen, 2014). 그녀가 보기에 파리 디자이너들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전후 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사회와 이에 부응하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따른 새로운 생활 환경은 그에 맞는 여성복 디자인을 요구하게 되었고 캐신은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쓴 1950년대 메이시스(Macy’s) 백화점 광고물에는 그녀가 얼마나 글로벌한 마인드를 지니고 있는지, 앞으로의 시대를 예측하였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나는 뉴욕에서도 살고 캘리포니아나 파리에 서도 산다. 내 여행 가방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세계는 저 모퉁이를 돌아서면 있다(Spindler, 2001).” 그녀는 잦은 출장, 여행 등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미국 여성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주목하였고 그에 맞는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이는 그녀가 영화 의상을 하였을 때부터 드러난다. 당시는 영화 의상 디자이너들이 배우들에게 과도하게 화려한 옷을 입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캐신은 영화 『Laura』의 여배우 젠느 티어니(Gene Tierney)의 의상을 좀 더 단순하고 여유롭게 디자인했는데 그것은 로라의 캐릭터에 잘 맞는 것이었다. 캐신은 당시의 주류의 흐름과는 다르더라도 캐릭터에 맞는, 즉 상황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캐신은 일을 할 때도 주관이 뚜렷하며 작업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케치부터 생산까지 모든 작업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스타일이어서 조수를 둔 적도 없었고 자신의 스타일과 디자인에 대한 철학이 확고했기에 어떤 한 회사에 묶이는 것을 싫어했다. 한 브랜드를 위해서만 일한다는 것은 자신의 스타일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이 온전히 보장되고 디자인 작업에 있어 주도권이 보장되는 샘소나이트(Samsonite), 버그돌프 굿맨(Bergdorf Goodman), 리버티 오브 런던(Liberty of London), 화이트 스테그(White Stag) 등의 회사들과만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많이 했다. WWD의 에릭 윌슨(Eric Wilson)과 자넷 오자드(Janet Ozzard)는 캐신의 이러한 독특한 주도권에 대해 그녀가 한 말을 인용했다. “나는 어느 한 회사나 디자인 문제로 틀에 갇히고 싶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죠. 여성이 입거나 치장하는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싶었어요. 신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디자인한다는 건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Bonnie Cashin Biography, n.d).” 패션과 디자인에 대한 뚜렷한 주관과 스타일은 그의 작업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시대를 앞서가는 진보적인 생각들은 미국적인 패션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2. 캐신의 패션디자인 분석

신시내티 대학교 소장 작품 57점과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작품 253점 중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의상 186점, 총 243점의 형태, 색상, 소재 및 디테일을 분석하였다. 총 243점 자료들 중 각 아이템의 수량은 <Table 1>과 같으며 스웨터와 가디건은 아이템의 종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탑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상, 하의 한 벌 의상이 다수였는데, 스커트와 재킷의 조합이 16착장이며, 바지와 재킷의 조합이 8착장, 코트와 스커트로 이루어진 것이 4착장, 코트와 바지로 이루어진 것이 2착장, 탑과 스커트로

Table 1. 분석 자료: 아이템별 수량.

아이템 장소	재킷	탑	스커트	코트	드레스	팬츠	케이프	점퍼수트	베스트	랩	수영복	합계
신시내티	10	4	10	22	5	4	2	0	0	0	0	57
메트로 폴리탄	24	24	31	31	38	19	10	3	3	1	2	186
합계	34	28	41	53	43	23	12	3	3	1	2	243

이루어진 것이 6착장, 탑과 바지로 이루어진 것이 7착장, 스커트와 가디건 세트가 1착장이었다. 또한 드레스와 코트 세트가 10착장이며 재킷과 드레스가 2착장, 드레스와 케이프의 세트가 3착장, 케이프와 바지의 세트가 2착장, 베스트와 드레스의 조합이 1착장이었다.

1) 형태: 실루엣 및 디테일

실루엣을 살펴보면 재킷의 경우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18점, 허리라인이 살짝 피트되는 것이 8점, A라인이 6점으로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코트의 경우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17점, 허리선이 살짝 피트 되는 것이 3점, A라인이 33점으로 A라인 실루엣이 눈에 띄게 많았다. 드레스의 경우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15점, 허리선이 피트 되는 것이 22점, A라인이 6점으로 피트 되는 실루엣이 가장 많았다. 드레스의 경우 재킷이나 코트 속에 앙상블의 형태로 같이 입는 경우가 많아서 살짝 피트 되는 실루엣이 많으나 이 또한 허리 밴드 위아래를 서링으로 주름 잡은 디자인들이 많아서 몸에 밀착되는 형태는 아니며 피트 되는 정도가 심한 것은 웨딩드레스와 카테일 드레스 등 3점에 지나지 않았다. 코트의 경우 가장 밖에 입는 겉옷이므로 안에 여러 겹의 옷을 입어도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는 A 라인 실루엣이 가장 많다. 대부분 A라인 실루엣인 케이프도 12점이나 되었는데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오는 길이로 캐신의 다문화성과 창의성과 실용성이 돋보이는 것이었다. 스커트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12점, A

라인이 29점으로 A라인 스커트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들 대부분이 플레어스커트였다. 또한 대부분이 무릎이나 무릎보다 긴 길이였으며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스커트는 2점에 지나지 않았다. 드레스의 길이도 무릎이나 무릎보다 살짝 내려오는 길이가 대부분이고 발목까지 오는 롱 드레스가 4점 정도였다. 바지는 몸에 알맞게 피트 되는 정도의 발목까지 오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바지가 대부분이며 8부 정도 길이의 바지가 8점, 그보다 짧은, 7부 길이 정도의 바지가 2점이었다. 스커트와 팬츠, 그리고 드레스의 길이는 당시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 이후 허리를 강조하는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유행했음에도 캐신의 디자인은 일상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신체에 부담을 주는 실루엣은 추구하지 않았다. 캐신의 드레스나 재킷, 코트 등을 살펴보면 허리를 조이기보다는 적당히 여유를 두어 편안하고 활동성이 좋은 형태로 디자인되어있다. <Figure 2>와 같이 노 코트(noh coat)라 불리는 캐신의 코트는 몸에 붙지 않고 적당히 헐렁하며 T자 형태로 디자인되어 벗어나서 접으면 납작하게 접어지는 형태이다. 노 코트는 고급 울을 사용하여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수요가 늘어난 서버번 코트(suburban coat)에 부응하여 만든 것으로 자동차에 오르내리기 편한 짧은 길이로 만들어졌다. 사이즈와 크게 상관없이 누가 입어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넉넉한 품새와 평면적인 구성은 당시 풍요로운 미국의 기성복 산업에 적합한 형태였다. 따라서 소재의 느



Figure 1. 보니 캐신의 모습.
From Bonnie Cashin-American Pioneer. (2011).
<https://blog.colettehq.com>



Figure 2. 스웨이드 바인딩된 노코트.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2, 2006).



Figure 3. 가죽 끈으로 여미는 캔버스 코트.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2, 2006).



Figure 4. 케이프의 여밈, 턱락 잠금장치.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2, 2006).



Figure 5. 프린징 디테일의 바지와 탑.
From Indian Summer. (n.d.).
<https://www.metmuseum.org>

킴을 그대로 살리면서 매우 평면적인 단순한 커팅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접근이었으나 자칫 디자인 자체는 밋밋해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구성을 독특하게 만든 것이 바로 디테일이라 할 수 있다. 레베카 아놀드(Rebecca Arnold)는 그의 책에서 캐신의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간소하고 효율적이며, 재미난 단추와 벨트 버클 디테일 등이 전체 실루엣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든다고 하였다(Arnold, 2009).

칼라의 형태를 살펴보면 재킷은 셔츠칼라가 5점, 라운드 넥가 8점, 컨버터블칼라 11점, 만다린 칼라가 1점, 솔칼라가 4점, 스탠드칼라가 2점, 뒤로 카울이 지는 형태의 칼라가 1벌이었다. 코트에서는 셔츠칼라가 9점, 컨버터블칼라 10점, 솔칼라 4점, 스탠드칼라 6점, 테일러드 칼라 6점, 롤칼라 1점, 케이프칼라 2점, 후드 형태가 6점, 라운드 넥가 7점, 브이 넥가 2점이었다. 또한 탑에서는 스탠드칼라가 2점, 퍼넬 칼라가 2점, 컨버터블칼라 1점, 피터팬 칼라 1점, 케이프칼라 1점, 롤칼라 1점, 보우칼라 3점, 스탠드어웨이 칼라 4점, 후드 형태가 1점, 브이 넥가 3점, 보트넥가 6점, 라운드 넥가 9점, 스퀘어 넥가 1점이었다. 칼라가 없는 경우는 라운드 넥라인을 선호하였으며 칼라가 있는 경우에는 셔츠칼라와 컨버터블칼라를 많이 사용하였다. 케이프는 라운드 넥가 2

점, 후드가 2점, 스탠드 칼라가 3점, 컨버터블 칼라가 1점이다.

디테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네크라인이나 햄라인, 허리 밴드 부분이나 소매 끝 등 가장자리를 두른 가죽 바인딩이었으며 무려 65점의 의상에서 사용되었다. 캐신은 단순한 구성을 선호하여 안단 등을 대지 않고 가죽이나 마 바이어스 테잎 등으로 파이프 하거나 바인딩 처리로 장식하는 것을 좋아했다. 스웨이드, 울, 니트, 심지어 오간디 이브닝 웨어도 가장자리 트리밍을 사용했다. 바인딩과 연결되어 끈으로 여미는 디테일도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코트와 케이프에 끈 여밈이 많이 보이며 때로는 단추와 함께 끈 여밈이 사용되었다(Figure 3).

또한 캐신은 남들이 이전에 쓰지 않은 디테일들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토글, 턱락 잠금장치(turn lock closure), 도그 리쉬 클립(dog leash clip), 끈과 가방의 연결 장치)들로 이 장식적 요소들은 그녀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Figure 4). 이러한 요소들은 가방이나 재킷이나 코트의 여밈 장치로 사용하였다. 재킷과 코트는 일반적인 단추 여밈 이외에 턱락 잠금장치, 끈, 브로치, 버클, 도그 리쉬 등 다양한 여밈 장치를 사용했는데 턱락 잠금장치가 25점의 의상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프린징이 있는 디자인도 5점이었는데

울과 가죽 소재의 디자인에 장식적 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Figure 5). 또한 하의와 코트에 주로 달린 큰 포켓도 캐신의 디자인에 흔히 눈에 띄는 디테일이다.

2) 색채 경향

캐신이 좋아했던 색상들은 원색이나 파스텔색 보다는 암록색, 적갈색, 짙은 황색, 청록색, 흙색과 같은 얼으면서도 어두운 자연의 가을 색들이었고 때때로 비비드한 색을 악센트 컬러로 사용하였다(Bonnie Cashin-American Pioneer, 2011). 캐신이 생각한 주 고객층이 젊은 여성들보다는 집안일과 사회활동 모두를 활동적으로 해나가는 성숙한 이미지의 캐리어우먼이었기에 색상들도 완숙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신시내티 대학의 소장품들을 IRI색상과 톤 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톤에서는 딥톤과 덜톤이, 색상으로는 베이지와 브라운 등 노랑 계열의 색이 가장 많았고 코랄이나 자주색처럼 빛바랜 붉은 계열이 그 다음으로 많이 보인다. 덜 톤의 청색과 세루리언 블루가 파란색 군을 이루며 그 외에 라이트톤의 크림색, 밝은 핑크, 연두색과 에머럴드 그린 등 밝은 색들도 있다.

체크문양을 많이 사용하였기에 색 조화도 신중히 고려했을 것이다. <Figure 6>과 같이 종종 회색,

베이지색 등 남성복에서 따온 색상들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절묘한 조합을 통해 섬세하고 감각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투피스나 앙상블의 경우 같은 소재로 된 경우가 많지만 단색과 체크 문양과의 배합도 종종 있으며 이때에는 과감한 배색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자주색의 플레이드 문양에 브라운 바지를 조합하거나 붉은 계열의 플레이드 문양인데 베이지 재킷으로 색상 차를 크게 주기도 했다(Figure 7). 캐신의 배색 감각은 안감의 선택에서도 드러나는데 초록색과 무채색의 코트 안에 분홍색 안감을 대거나 플레어스커트의 안감에도 눈에 띄는 분홍색 안감을 사용하여 움직임이 커지면 보일 수 있는 안감에도 색상의 포인트를 주려한 의도를 알 수 있다(Figure 8). 캐신은 꽃문양이나 자연주의적인 문양보다는 기하학적인 문양을 선호하였다. 아주 두꺼운 스트라이프나 큰 격자무늬 등이 많은데 이는 대부분 단순한 구성으로 된 그녀의 디자인에 적합한 것이었다. 구성이 평면적이고 복잡하지 않으므로 문양이 끊어지거나 왜곡되지 않고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옷들의 성숙한 느낌의 색상에 비해 1960년대 코치에서 디자인한 가방들의 색상은 겨자색, 옥색, 분홍색 등 화려한 아이스크림과 같은 색상으로 좀 더 밝아진다. 아마도 이는 코치에서 처음으로 여성용 가방을 생산하면서 보



Figure 6. 가족트리밍이 되어있는 모직 드레스.
From Dress. (n.d.).
<https://www.metmuseum.org>



Figure 7. 단색과 체크문양의 조합.
From Ensemble. (n.d.a).
<https://www.metmuseum.org>



Figure 8. 이브닝드레스와 가운.
From Evening ensemble. (n.d.a).
<https://www.metmuseum.org>



Figure 9. 가족 웨딩드레스.
From Wedding dress. (n.d.).
<https://www.metmuseum.org>



Figure 10. 모헤어와 스웨이드로 구성된 코트(1973).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2, 2006).

다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고 한편으로는 가방이 전체 스타일링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자 했던 의지가 반영이 된 듯하다. 캐신이 좋아했던 원숙하고 짙은 색상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오염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색상들이어서 실용성과 활동성을 추구하는 그녀의 콘셉트에도 부응하는 것이기도 했다.

3) 소재

신시내티 대학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들의 소재를 살펴보면 주로 모직, 가죽, 스웨이드, 모헤어, 니트 등이 주로 쓰였고 문양으로는 스트라이프와 다양한 형태의 체크문양이 눈에 띈다. 비율로 보면 모직이 무려 55%를 차지하며 스웨이드 포함하여 가죽이 25%, 면이 12%, 실크가 5%, 나머지가 합성소재와 린넨 소재였다. 면은 주로 캔버스 소재였으며 비옷 등에 쓰였다.

실용성과 기능성을 중시했던 캐신은 비싸지 않은 데넬, 코듀로이, 시어셔커, 칼리코 같은 소재를 좋아했다. 가죽과 같이 오랜 기간 변치 않고 내구성이 좋은 소재들은 그녀의 디자인 철학에 맞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죽 치마를 만든 첫 디자이너였으며 웨딩드레스를 가죽으로 만들기도 하였다(Figure 9). 그녀의 가죽 사랑은 1953년 가죽 수입업체인 펄립 실즈와 협업하면서부터인데 하이패션에 가죽을 사용하는 것에 선구적이었다(Bonnie Cashin Biography, n.d.). 가죽과 스웨이드는 드레스 전체에 사용하기도 하고 캔버스나 저지 소재의 가장자리 장식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울과 가죽 바인딩의 조합은 그녀가 가장 선호하는 소재 결합 중 하나였고 이러한 가죽을 이용한 파이핑과 바인딩은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가죽 바인딩은 심지어 앞치마의 장식에도 쓰였다. 가죽을 이용한 캐신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실즈의 정교한 솜씨는 여성 패션에 큰 영향을 주었고 1950년대 중반까지 가죽은 최고의 패션 소재가 되었다(Sarofeen, 2014). 또한 새틴

실크와 타프타, 울 개버딘 등도 즐겨 쓰던 소재였으며 캔버스, 데넬, 면, 그리고 직물과 니트의 결합 등 다양한 소재 결합을 자주 사용하였다(Figure 10).

IV. 캐신의 패션디자인의 특성

현대에 와서 캐신의 디자인을 보면 그리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뉴욕 스타일이 강세였던 당시 캐신의 디자인은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 캐신에 관한 자료와 신시내티 대학교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캐신의 작품을 디자인 요소 별로 분석하여 5가지 특성을 도출하였다.

1. 편안한 실용성

일하는 현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옷을 만들고자 했던 캐신의 노력은 그 편안한 실용성에서 가장 드러난다. 2000년 F.I.T. 전시장에서의 전시 제목은 ‘보니 캐신: 실용적 이상주의자(Bonnie Cashin: Practical Dreamer)’였다(Bonnie Cashin-American Pioneer, 2011). 그 전시의 카탈로그는 캐신의 작품이 “당시의 민주주의와 독립적이고 용감한 여성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Wroe & Colquhoun, 2011).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던 시기의 직장 여성들을 위해 디자인했기에, 캐신은 ‘패션은 필요에서 진화한다’라고 말하며 실용성과 편안함을 추구했다. 대부분의 디자인은 허리를 조이지 않으므로 넉넉하여 활동성이 좋고 편안하다. 바지 앙상블 <Figure 11>과 코트 <Figure 25>는 거추장스럽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 앞자락을 짧게 하였다.

캐신의 디자인의 실용성과 기능성은 소재 선택에서부터 드러난다. 그녀가 좋아했던 소재인 울, 저지, 니트는 따뜻할 뿐 아니라 여유와 활동성을 제공한다. 입을 때 지퍼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목 입



Figure 11. 이브닝앙상블.
From Ensemble ensemble.
(n.d.b).
<https://www.metmuseum.org>



Figure 12. 가죽 바인딩이
되어있는 저지 소재의
퍼넬레크 탑.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2, 2006).



Figure 13. 드로우스트링으로
연결된 파우치가 달린
스웨이드 코트.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2, 2006).



Figure 14. 벨트에 큰 포켓이
연결된 코트.
From Ensemble. (n.d.b).
<https://www.metmuseum.org>

구가 넉넉한 터틀넥 스웨터는 목 부분이 특히 풍성하여 여러 겹으로 겹쳐 날씨가 추운 날에는 후드처럼 사용되기도 했다(Figure 12). 캐신이 디자인한 아이템들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실용적 가치를 중요시했는지를 알 수 있다. 어느 한 특정 브랜드가 아닌 다양한 회사를 위해 디자인한 그녀는 모델리아(Modelia)를 위해 비옷을 디자인하고 크레센도 수퍼브(Crescendoe-Superb)를 위해 장갑을 디자인하였다. 원피스, 코트 등 일반 기성복에서 가방, 신발, 모자, 에이프런에 이르는 작은 액세서리류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의 실용적인 의류제품들을 디자인한 것이다. 유럽의 디자이너들이 여성의 여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파티 드레스가 아닌 실용성이 뛰어난 일상복 디자인에 주력하였다. 단순하고 실용적 가치에 중점을 두니 그녀의 옷들은 당시에는 스포츠웨어처럼 평가되었다. 그녀의 부고 기사에서는 “패션계에서 스포츠웨어처럼 여겨지던 그녀의 옷은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들이 입는 룩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Wroe & Colquhoun, 2011, p. 57).

그녀가 많이 사용한 디테일은 가장자리 바인딩과 독특한 여밈 장치들인데 이들은 장식적 역할만 하는 디테일들이 아니다. 바인딩은 장식성과 함께 내구적 실용성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주로 가죽으로 된 바인딩은 가장자리가 닳거나 헤어지지 않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Figure 6), (Figure 14).

여밈장치 또한 실용적 기능이 있다. 장식적 요소조차 실용적인 이유로 적용된 것이다. 그녀에게 실용성이란 불필요한 장식이나 디테일은 배제하는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실루엣도 직선적이며 단순하고 실용성을 가지는 독특한 여밈 장치나 가장자리 바인딩을 제외하고 장식만을 위한 디테일이 적용된 디자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2. 편리함을 위한 기능성

실용적인 면과 같이 보니 캐신이 가장 염두에 두었던 디자인 요소는 기능적인 부분에 있다. 패션은 필요에서 진화하던 그녀의 말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20세기 기능주의 디자인의 원칙과 다른 말이 아니다. 그녀가 코치에서 1962년부터 13년간 일하면서 핸드백에 혁명을 일으켰던 것도 기능성을 더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그녀는 핸드백에 컬러를 더하고, 안쪽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주머니를 고안해 냈다(날렵해진 루이비통 미국색 회복한 코치... [Sleek Louisvuitton, Coach recovered American colour...], 2014). 주머니는 그녀의 옷에서 매우 중요한 디테일이다. 큰 주머니와 도그리쉬 등 그녀가 즐겨 쓰던 디테일은 디자인 포인트로서 장식적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 그녀는 그 디테일의 기능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Figure 13>, <Figure 14>와 같이 문고판 책이 들어갈 만큼 큰 포켓은 휴



Figure 15. 지갑형 포켓이 달린 스커트.
From Skirt. (n.d.).
<https://www.metmuseum.org>



Figure 16. 도그리쉬로 들어 올린 스커트.
From Evening ensemble. (n.d.c).
<https://www.metmuseum.org>



Figure 17. 턱락장치로 연결된 코트.
From Coat. (n.d.a).
<https://www.metmuseum.org>



Figure 18. 기모노 슬립의 평면적인 카테일드레스 앙상블.
From Cocktail ensemble. (n.d.).
<https://www.metmuseum.org>



Figure 19. 오비 벨트로 여민 코트.
From Ensemble. (n.d.c).
<https://www.metmuseum.org>

대할 것들이 많은 현대 여성들에게 편리함을 준다. 캐신은 핸드백이나 지갑에서 손이 자유로우면서도 휴대 기능을 강조한, 지갑이 결합된 스커트를 출시하였다(Woo, 2006), (Figure 15).

이 주머니들은 지퍼나 지갑처럼 단단히 닫힐 수 있어 보안성도 완벽한 것이었다.

<Figure 16>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긴 드레스 자락이 끌리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그리쉬로 풍성하고 긴 스커트 앞자락을 올려 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적이고도 장식적인 역할을 부여하였다. 모헤어 스커트의 앞자락은 들어 올려지며 풍성한 주름을 만들어 더 색다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마치 18세기 후반 드레스 자락의 형태를 재현한 듯하다. <Figure 17>의 코트는 두 부분으로 분할이 되고 컨버터블 자동차의 지붕과 차를 고정하는 장치에서 가져온 턱락 잠금장치로 연결해 놓았다. 잠금장치를 열어 아랫부분을 분리하면 긴 재킷으로도 입을 수 있도록 하여 길이에 따라 한 옷으로 두 벌의 효과를 줄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기능적인 이유로 겉옷에는 후드를 많이 달았고 아버지의 작업복에서 영감을 받은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점프 수트 <Figure 26>을 선보이기도 했다. 기능성과 실용성은 캐신이 디자인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었다.

3. 동양적인 평면성

1940년대와 50년대에 서양 디자이너들이 동양적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드문 일이었지만 보니 캐신은 기모노를 도용하고 서양식 테일러링을 폐기함으로써 1950년 ‘노코트’ 같이 시대를 앞서 기능적인 패션을 만들었다(Japonism in Fashion, n.d.). 1950년대의 유럽과 미국의 여성복이 매우 구조적이었음에도 캐신의 실루엣은 다트와 술기를 최소화시킨 네모나고 각진 평면적인 형태이다. 인도, 중국, 일본 등 동양의 여러 곳을 여행한 캐신은 이들 문화에서 받은 영향을 자신의 디자인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Figure 18>과 같이 코트나 재킷의 기모노 슬립은 대표적이며, 오비의 형태와 유사한 벨트, 기모노의 오비에서 따온 것 같은 넓은 벨트로 여민 코트 <Figure 19>, 중국 전통복식 형태를 닮은 재킷 <Figure 20> 등은 실루엣, 디테일 모든 형태적인 것에서 캐신이 얼마나 동양풍을 선호하였는지 알 수 있다. 캐신은 『Anna and the King of Siam』 영화 의상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동양의 복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인도, 중국, 일본 등 동양의 여러 곳을 여행한 후 이들 문화에서 받은 영향을 자신의 디자인에서 평면적인 형태로 풀어내었다. 특히 그녀는 아시아 지역과 전통 복식의 다양한 특징들 중에서 동양 복식의 평면성



Figure 20. 차이나칼라 재킷 (1967).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2, 2006).



Figure 21. 기모노 스타일 코트.
From Coat. (n.d.b).
<https://www.metmuseum.org>



Figure 22. 목 부분에만 여밈이 있는 베스트형 코트.
From Suit. (n.d.).
<https://www.metmuseum.org>



Figure 23. 랩.
From Wrap. (n.d.).
<https://www.metmuseum.org>

에 주목했다. 평면적 재단이 동양 의복을 우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고 단순한 커팅과 평면성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서양 패션에도 적용하고자 했다. 1949년 프리미어 컬렉션에서 전통 일본 의복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판초, 외투, 케이프, 토가 등을 디자인했다.

<Figure 21>의 기모노 슬리브 코트는 T자 형태로 완전히 평면적이다. <Figure 22>의 케이프는 천을 그대로 잘라 이어붙인 듯하다. 이러한 다트거의 없는 평면적인 형태는 그녀가 좋아했던 다양한 크기의 체크무늬를 온전히 보여준다. 실제로 캐신은 드레핑 작업을 하지 않았고 항상 평면 패턴 작업만 하였다. 이런 입체적이지 않은 형태들은 기성복의 대량생산에 매우 적합하고 평평하게 접기도 좋아 가방이나 옷장에 보관하기에도 편리하다. 이는 도심의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여 공간이 넉넉지 않은 현대 여성들, 여행과 활동, 그에 따라 휴대할 것이 많은 라이프스타일에 매우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형태였다. 캐신 디자인의 평면성은 생산의 용이함과 보관의 편리함, 스타일의 우아함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4. 스타일링의 유동성

캐신의 혁신성은 착용자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동적인 디자인을 한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49년 캐신은 극동을 여행한 후 뉴

욕에 돌아와 아시아 패션의 단순한 패턴과 디자인을 연구하여 첫 번째 컬렉션 ‘We Live As We Please’를 발표하였다. 컬렉션에서는 여행에서 받은 영감을 장식 없이 단순한 라인의 옷들로 다양하게 레이어링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선보였다.

일본을 방문한 캐신은 같은 형태의 의복을 여러 겹 겹쳐서 입는 기모노를 보고 그 유용성에 탄복하였다. 이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응하기가 편리하고 실용적인 것이었고 캐신은 업무출장 등 여행이 잦은 현대 미국 여성들의 생활에 매우 적합한 착장법이라 생각했다(Sarofeen, 2014). 여행을 좋아했던 그녀는 레이어드스타일이 여행지의 변화무쌍한 날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Economist』에 실린 캐신의 사망 기사에는 그녀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패션 기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룩에 고마워했고, 레이어링은 한 동안 빅 이슈였다” 캐신의 노코트는 특히 레이어드 스타일링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Bonnie Casnin, n.d.).

실용적 이유에서 만들어진 레이어드스타일은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레이어드스타일은 디자이너의 디자인 제한 이상의 다양한 효과를 가진다. 착장자의 개성에 따라 독특한 미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독창적인 스타일로 재탄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캐신은 한 벌 의상을 제한하기 보다는 개별 아이템들을 많이 디자인하였고 이는 착용자의 취향대로 각각 다르게 코디네이션 할 수 있게 한

것이였다.

마이아와 소매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컬렉션 에세이에는 이를 ‘캐신룩’이라 칭하며 각 컬렉션을 완성시키는 색과 스타일의 폭넓은 방법을 담고 있었다. 컬렉션 에세이와 뉴스 기사에는 종종 다양한 길이의 니트 스커트를 포함하는 캐신의 레어드룩이 소개되었다(Bute, 2007). 레어드스타일링은 캐신의 디자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는 실용적이면서도 착용자에게 스타일링 방법을 여지를 주는 것이였다.

캐신은 미국여성의 라이프스타일 뿐 아니라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소비자의 요구를 일찌감치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랩 <Figure 23>과 <Figure 24>와 <Figure 25>는 모두 레어드스타일을 위한 케이프와 코트로 자유로이 걸치거나 접어놓을 수 있는 형태이다. 코트나 케이프의 여밈도 종종 맨 위쪽에만 여미게 되어있다. 온도변화에 따라 가볍게 걸칠 수 있게 고안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덕분에 코트나 케이프 속에 입은 옷들이 잘 보이기도 하므로 착용자의 미적 감각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

다이아나 크랜(Diana Crane)은 자신의 책에서 보니 캐신의 디자인에 대해 “스타일들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프랑스의 패셔너블한 스타일과 정확한 반대되는 것이였다. 여성 인체에 부담을 주는 형태보다 착용자의 한 부분이 되었고 착용자는 옷의

한쪽 면을 변형하거나 어떻게 입을지 선택할 수 있었다. 이 옷들은 래핑되거나 묶이는 방식이 많았고 착용자가 자신의 신체를 얼마나 조일지, 혹은 얼마나 여유를 둘지에 대해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였다. 허리선도 유동적이였다. 칼라와 리본들은 묶을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둘 수도 있는, 이 또한 착용자의 창의적인 선택사항이였다”라고 쓰고 있다(Crane, 2000, p. 139). 이러한 착장법과 스타일링 형식에 대한 개념트는 이후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캐신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던 당시 패션 트렌드에 반해 활동성과 기능성을 앞세운 편안한 스타일을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에 따라 연출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유동적 스타일을 제안하며 미국 패션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5. 일상을 위한 대중성

캐신의 디자인은 부유하거나 트렌드를 선도하는 일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 대중을 위한 것이였다. 이는 크리스찬 디오르와 같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파리의 오프퍼뮈르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라인을 발표하며 극소수의 고객을 위한 패션을 선도해 나가는 것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것이였고 이것으로 인해 프랑스 꾸뛰르의 지속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평범한 여성들이 일상



Figure 24. 케이프.
From Ensemble. (n.d.).
<https://www.metmuseum.org>



Figure 25. 앞자락이 짧은 코트.
From Coat. (n.d.c.).
<https://www.metmuseum.org>



Figure 26. 점프 수트.
From Jumpsuit. (n.d.).
<https://www.metmuseum.org>



Figure 27. 레인코트.
From Raincoat. (n.d.).
<https://www.metmuseum.org>



Figure 28. 비치웨어.
From Beachwear. (n.d.).
<https://www.metmuseum.org>

생활에서 늘 입을 수 있는 대중성은 캐신의 디자인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파티드레스가 아닌 레인코트 <Figure 27>과 비치웨어 <Figure 28>, 팬츠 등 대중이 일상에서 입는 옷이 그녀의 관심사였다. 보도(Baudot)는 그녀의 패션을 생활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끈 ‘엘리트’로 기술하고 있다(Manlow, 2009). 실제로 캐신은 1956년 작가 베릴 윌리엄스(Beryl Williams)에게 “75%의 여성들의 옷장이 시간을 초월한-유행을 타지 않는- 옷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 옷들은 대부분 굉장히 단순하고, (중략) 단순히 내가 입고 싶은 옷들이다”라고 말하였다(Arnold, 2009, p. 23). 그녀는 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레저를 즐기는 현대인의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옷들을 디자인하였고, 그 이유로 그녀의 디자인은 매우 대중적인 것이 되었으며 이후 이렇게 전형화 된 디자인이 미국 패션을 특징지었다.

그녀의 디자인의 대중성은 가격에서도 나타난다. ‘가능한 가볍게, 가능한 단순하게, 가능한 효과적으로, 가능한 비싸지 않게’ 디자인하고자 했기에 집안 일을 하기 위한 평상복과 같은 그녀의 옷들은 대형 마트에서 6.95달러에 팔리기도 했다(Crane, 2000). 사실 1950년대에 캐신이 여러 브랜드들을 위해서 디자인했던 옷들의 가격대는 너무나 다양해서 14.95불의 비웃에서부터 2000불의 모피 기모노까지 있었다. 당시 어떤 디자이너도 이처럼 편차가 심한 브랜드 디자인을 하지는 못했다(Bonnie Cashin, n.d.). 1950년대 파리 중심의 오프꾸뛰르 패션 체계에 대항하여 일반 대중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대의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의상을 선보임으로써 미국 기성복 시장이 발전하는 초석의 역할을 하였다.

V. 결 론

캐신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여성들의 사회활동

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대에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여 유럽패션의 흐름이나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확고한 패션 철학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여 미국 여성들을 위한, 미국적인 캐주얼스타일을 창시해낸 대표 디자이너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당시 디올을 비롯한 파리 디자이너의 패션은 사회활동이 많은 현대 여성들에게 너무 비실용적이고, 제약적이라고 생각했고 동양의 중국의 드레스와 일본 기모노의 레이어링에 깊이 매료되었다. 무대의상디자이너와 동양의 여행 등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격대의 여러 브랜드들과 협업하며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에 분석된 옷들은 총 243점으로 바지 정장, 스커트 정장, 드레스와 코트의 앙상블 등으로 조합된 의상들이 많았으며 대부분 구조적이기보다는 평면적 구성으로 허리를 조이기보다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 편안하고 활동성이 좋은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소재는 합성섬유보다는 울, 가죽, 실크, 면 등 자연소재들, 그 중 울과 가죽 소재가 특별히 많았다. 색상은 흑백의 모던한 느낌보다는 딥톤과 덜톤의 노랑과 빨강색들로, 성숙한 가을 분위기의 베이지, 브라운, 주황색, 자주색 등이 많았고 데님의 청색과 옅은 올리브그린과 같은 푸른 계통도 있었다. 또한 자연의 문양보다는 기하학적인 문양을 사랑하였고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체크문양이 많이 있었다. 동양풍의 영향이 짙은, 복잡하지 않고 깨끗한 라인, 적당한 맞음새, 큰 포켓과 같은 기능적 디테일들로 캐신의 옷들은 실용적이고 편안한 옷들이다.

캐신의 디자인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편안한 실용성, 편리한 기능성, 동양적인 평면성, 스타일링의 유동성, 그리고 일상을 위한 대중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5가지 특성들은 각기 독립적인 특성이 아니라 각 특성들이 다른 특성의 근거가 되는 식으로 유기적으로 얹혀있다. 평면적 특성을 통해 실용성과 유동성이 만들어졌으며 유동

성은 다시 실용성과 기능성을 부여한다. 기능성과 실용성을 가지기에 대중성을 지녔으며 대중성을 통해 다시 유행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이 모든 특성들은 자신이 바쁘게 일하는 생활인으로서 전쟁 후 변모하기 시작한 미국 여성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관찰하여 그녀들이 원하는 것, 그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체득함으로써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패션을 제안하였다는 것에 캐신 디자인의 가치가 돋보인다 할 수 있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대인은 디지털 노마드족이라 불리며 글로벌 시대의 역동적인 삶이 현실이 되었는데 이미 반세기 이전부터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예견하여 그에 적합한 휴대 기능 및 변형 가능성, 레이어드착장법 등을 제시한 캐신의 통찰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렇듯 오늘날 미국 패션 산업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일찍 감지하여 디자인에 적용한 캐신의 통찰력과 직관력, 그리고 내적 감각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로써 한 디자이너를 통하여 유럽의 트렌드를 추앙하고 그대로 답습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미국 패션의 태동과 발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비록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소장 작품은 홈페이지에 있는 작품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라 색깔 등의 파악에 있어 한계로 지적될 수도 있으나 기준색을 작품과 동일 화면에 놓고 비교하였고, 또한 신시내티 대학의 소장 작품을 실물로 볼 수 있어서 캐신이 주로 사용하던 색채감이나 디테일 등을 미루어 볼 때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연구는 1950~70년대로 한정하였으나 그 이전의 할리우드 시절의 영화 의상이나 코치에서의 가방 디자인 등 그녀의 다른 시기의 디자인 작업 및 액세서리 디자인 등을 포괄하여 살펴보는 일도 필요할 것이며 이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References

- Arnold, R. (2009). *Fash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udot, F. (1999). *A century of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 Beachwear. (n.d.).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175759?sortBy=Relevance&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offset=0&rpp=100&pos=67
- Bonnie Cashin-American Pioneer. (2011, March 16). *COLETTE*. Retrieved June 5, 2014, from <https://blog.colettehq.com/inspiration/bonnie-cashin-american-pioneer>
- Bonnie Cashin. (n.d.). *WIKIPEDIA*. Retrieved October 16, 2013, from https://en.wikipedia.org/wiki/Bonnie_Cashin#cite_note-Advameg_notablebiographies.com_SupplementCa-Fi_BonnieCashin-1
- Bonnie Cashin Biography. (n.d.). *Encyclopedia of World Biography*. Retrieved January 10, 2014, from <http://www.notablebiographies.com/supp/Supplement-Ca-Fi/Cashin-Bonnie.html>
- Bonnie Cashin collection of fashion, theater, and film costume design, 1913-2000. (n.d.). *OAC*. Retrieved December 21, 2013, from <http://www.oac.cdlib.org/findaid/ark:/13030/tk9z09q97x>
- Bute, M. J. (2007). *Bonnie Cashin: Connecting the designer to the designed garment through a material culture analysis of five examples of her work, 1962-1975*.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Ames.
- Choi, H. S. (1992). Designer's interpretation of the zeitgeist as shown in the works of Rudi Gernreic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6(4), 457-470.
- Coat. (n.d.a).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92292?sortBy=Relevance&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offset=0&rpp=20&pos=2
- Coat. (n.d.b).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158161?sortBy=Relevance&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offset=0&rpp=20&pos=17
- Coat. (n.d.c).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174375?sortBy=Relevance&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offset=0&rpp=100&pos=77
- Cocktail ensemble. (n.d.).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158204?sortBy=Relevance&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offset=200&rpp=100&pos=217

- Crane, D. (2000). *Fashion and its social agendas: Class, gender, and identity in clothing*.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sign Museum. (2011). *Fifty bags that changed the world: Design museum fifty*. London: Design Museum.
- Dress. (n.d.).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83950?sortBy=Relevance&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offset=0&rpp=20&pos=4
- Ensemble. (n.d.a).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83988?sortBy=Relevance&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offset=100&rpp=100&pos=180
- Ensemble. (n.d.b).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83954?sortBy=Relevance&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offset=100&rpp=100&pos=158
- Ensemble. (n.d.c).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92297?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rdkey=20180622&offset=0&rpp=20&pg=1&pos=18
- Ensemble. (n.d.d).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92272?sortBy=Relevance&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offset=100&rpp=100&pos=162
- Evening ensemble. (n.d.a).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159479?sortBy=Relevance&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offset=0&rpp=100&pos=40
- Evening ensemble. (n.d.b).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159478?sortBy=Relevance&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offset=0&rpp=100&pos=96
- Evening ensemble. (n.d.c).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83947?sortBy=Relevance&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offset=100&rpp=100&pos=129
- Feiteberg, R. (2017, September 21). Bonnie Cashin Archivist Takes Issue With Designer Copies. *WWD*. Retrieved May 20, 2018, from <http://wwd.com/fashion-news/fashion-scoops/bonnie-cashin-archivist-calvin-klein-spring-2018-punch-10995407>
- Japonism in Fashion. (n.d.). *Brooklyn Museum*. Retrieved September 27, 2015, from <http://www.brooklynmuseum.org/opencollections/exhibitions/1065>
- Jumpsuit. (n.d.).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83949?sortBy=Relevance&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offset=0&rpp=100&pos=76
- Ha, J. S. (2002). Functionalism expressed in American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6(9), 1455-1466.
- Indian Summer. (n.d.).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83951?sortBy=Relevance&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offset=200&rpp=100&pos=224
- Iverson, S. D. (n.d.). Bommie Cashin. *lovetoknow*. Retrieved October 9, 2013, from <http://fashion-history.lovetoknow.com/fashion-clothing-industry/fashion-designers/bonnie-cashin>
- Jung, E. S. (1995). A study on the Donna Kara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26(-), 265-278.
- Jung, H. S. (2002). *서양복식문화사* [Western cultural history of costume]. Seoul: Kyomunsa.
- Lake, S. (2016). *Bonnie Cashin: Chic is where you find*.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orporated.
- Lee, J. J., & Park, S. M. (2011). *패션, 문화를 말하다* [Fashion, talk about culture]. Seoul: Yekyong Publishing Co.
- Lee, S. H., Han, J. E., & Jung, S. H. (2008). Claire McCardell's influences on the moder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8(2), 95-110.
- Manlow, V. (2009). *Designing clothes: Culture and organization of the fashion industry*. Piscataway: Transaction Publishers.
- Milbank, C. R. (1985). *Couture, the great designers*. New York: Stewart, Tabori & Chang.
- Nam, K. M., & Park, H. W. (2001). A study on the American style of Ralph Lauren's design brand: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yle and design. *Journal of Human Ecology*, 5(-), 109-123.
- Raincoat. (n.d.).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156872?sortBy=Relevance&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offset=0&rpp=100&pos=59
- Sarofeen, G. (2014). Bonnie Cashin: Designing The Foundation of Modern Fashion. *University of Cincinnati scholar@uc*. Retrieved May 18, 2014, from <https://scholar.uc.edu/concern/articles/qv33rw64w?locale=en>
- Shin, S. O. (2006). *서양복식사*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Seoul: Suhaksa.
- Skirt. (n.d.).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84115?sortBy=Relevance&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offset=0&rpp=100&pos=91
- Spindler, A. M. (2001, January 7). The Lives They Lived:

- 01-07-01: Bonnie Cashin, b. 1915; Design For Living. *The New York Times Magazine*. Retrieved October 23, 2013, from <http://www.nytimes.com/2001/01/07/magazine/the-lives-they-lived-01-07-01-bonnie-cashin-b-1915-design-for-living.html>
- Suit. (n.d.).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95150?sortBy=Relevance&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offset=20&rpp=20&pos=31
- Sumathi, G. J. (2002). *Elements of fashion and apparel design (1)*. New delhi: New age International Publisher.
- The Editors of Encyclopaedia Britannica. (n.d.). Bonnie Cashin. *ENCYCLOPAEDIA BRITANNICA*. Retrieved October 21, 2013, from <https://global.britannica.com/biography/Bonnie-Cashin>
- Wedding dress. (n.d.).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155314>
- Woo, J. H. (2006). *Carrying systems in 21st century fash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unkuk University, Seoul.
- Wrap. (n.d.). *THE MET*. Retrieved December 18, 201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175050?sortBy=Relevance&who=Cashin%2c+Bonnie%24Bonnie+Cashin&ft=*&offset=0&rpp=100&pos=86
- Wroe, A., & Colquhoun, K. (2011). *Book of obituaries*. London: Profile Books.
- 날렵해진 루이비통 미국색 회복한 코치... [Sleek Louisvuitton, Coach recovered American colour...]. (2014, March 15). *Jungang Sunday*. Retrieved May 18, 2014, from <http://news.joins.com/article/14165600>

A Study on the Design of Bonnie Cashin

Kim, Injoo • Woo, Juhjung⁺

Professor, Fashion Design Program, University of Cincinnati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Abstract

Western Europe has been the center of development of its culture, and in the same vein, so has fashion culture been shaped in accordance with an evolving trend of power and capital. Despite significance of the New York collection, because of relatively short history and its emphasis on retailing, fashion design in the United States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and thereby led to limited academic studies. As Bonnie Cashin is the first-generation designe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her design is a key to comprehending contemporary American design industry. It not only helps understand origin of modern American design, but i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broadens the horizon of Western fashion trend of what then was heavily centered on European fashion. 253 pieces from the University of Cincinnati and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have been studied. Natural fabric such as wool, leather, silk, cotton was used rather than synthetic fiber; especially use of wool and leather was noticeable. Also mature, autumn-like color was predominant rather than chic black-white color. Practical details such as big pocket, simple line, moderate fit which are heavily influenced by the orient are pronounced. Thus, Cashin's design is summarized as convenience, practicality, orientalism, versatility and publicity.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nowadays American fashion industry largely derives from Cashin's insight in spotting the needs of American women in the post-war period.

Key words : American fashion, Bonnie Cashin, lifestyle, practicality, layered style

